

신유한의 일본정보 탐색 방식 연구

정은영*

Ⅱ 차례 Ⅱ

- I. 서론
- II. 일본정보의 정확성 추구
- III. 일본정보의 객관성 확보
- IV. 결론

【국문초록】

1719년 기해사행의 제술관 신유한은 기존의 정보에 정확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일본정보를 탐색하였다. 그는 기존의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추구하였다. 아울러 이전과는 달라진 일본의 변화상을 잡아내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를 고찰하거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신유한은 ‘조선’이나 ‘華夷論’이라는 기존의 이념에 따라 내린 주관적인 평가를 최대한 배제한 채, 실제 일본에서 관찰하고 일본인과의 문답을 통해 알아낸 사실을 근거로 일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조선인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정보일 경우에는 판단을 유보하며 단정적인 기술을 하지 않았고, 대신 일본인의 말을 그대로 기록하여 그들의 시각을 알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 신유한이 일본을 파악하기 위해 선택했던 방식은 조선중화주의에 경도되어 일본을 바라보았던 이전의 시각에서 진일보한 것이었다.

주제어 : 통신사, 신유한, 해유록, 정확성, 객관성, 일본정보, 탐색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I. 서론

申維翰은 일본의 제8대 關白 吉宗의 襲職을 하례하기 위해 파견된 기해사행(1719)의 製述官이었다. 그는 일본에서의 사행 체험을 『海游錄』으로 남겼는데,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에서는 보기 드물게 일기와 시, 그리고 문견록의 체제를 모두 아우르고 있어 통신사행록 중 가장 흥미로운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신유한은 산문 기록 속에 시를 수용하여 사행체험의 생동감과 사실성, 현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를 통해 그 내포적 의미를 확대, 심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견문을 「聞見雜錄」이라는 별도의 책으로 나누어 서술하여 일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견문을 전할 수 있었다.¹⁾ 그래서 『해유록』은 일본의 한국학 연구자는 물론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 사람들에게 근세 한일관계를 배우는 첫 번째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²⁾

『해유록』에 대한 연구는 김태준에 의해 시작되었다. 김태준은 1931년 간행된 『朝鮮漢文學史』에서 신유한의 『해유록』을 朴趾源의 『熱河日記』와 쌍벽을 이루는 기행문학의 白眉로 평하였다.³⁾ 이후 통신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해유록』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선과 일본 문사 간에 이루어졌던 문화교류의 양상을 『해유록』을 통해 도출하는 연구⁴⁾, 『해유록』의 사행문학적 특징에 대한 연구⁵⁾, 일본의 풍속과 제도에

1) 한태문, 「신유한의 『해유록』 연구」, 『동양한문연구』 제26집, 2008, pp.457-459.

2) 오바타 미치히로, 「신유한의 『해유록』에 나타난 일본관과 그 한계」, 『한일관계사연구』 제19집, 한일관계사학회, 2003, p.6.

3) 김태준, 『朝鮮漢文學史』, 조선어문학회, 1931, p.171.

4) 최박광, 「조일간 한문학 교류에 대하여, 청천 申維翰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5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80; 최박광, 「靑泉 申維翰と日本」, 『논문집』 제6집, 건국대학교 부설교육연구소, 1982; 최박광, 「18세기 일본한시단-申維翰 문집에서」, 『일본학』

대한 개별 연구⁶⁾ 등이 이루어졌고,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 신유한의 일본인식⁷⁾을 주제로 삼은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특히 신유한의 일본인식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는 그 인식을 양면적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즉 신유한은 자연과 경제, 그리고 군사력에 있어서는 일본을 긍정적으로 인식했지만, 그들의 풍속과 제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면적 인식을 신유한이 가진 문화적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한계로 지적⁸⁾하였다.

그러나 신유한이 양면적 시선으로 일본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중화주의적 화이관에 경도되어 일본을 배척했던 이전의 통신사행원과는 다른 점으

2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982; 최박광, 『18세기 한일간의 한문학교류-청천 申維翰과 新井白石』, 『전통문화연구』1집, 명지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3; 소재영, 『『해유록』에 비친 한일관계-申維翰의 『해유록』 연구』, 『승실어문』4집, 승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7.

5) 김윤향, 『18세기 申維翰의 일본인식에 관한 고찰-통신사기록 ‘해유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이해순, 『충격과 조화-申維翰의 『해유록』 연구』, 『동방문화비교연구총서』2, 한국동방문화비교연구회, 1992; 신선희, 『신유한의 『해유록』에 나타난 기행문학적 특성』, 『장안논총』 제25집, 장안대학교, 2005; 한태문, 『신유한의 『해유록』 연구』, 『동양한문연구』 제26집, 2008.

6) 이효원, 『신유한의 『낭화여아곡』과 일본의 성 풍속』, 『한국한문학연구』 제47집, 한국한문학회, 2011.

7) 이성후, 『청천 신유한의 대일관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논문집』 제18집, 금오공과대학교, 1997; 정응수,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일본관-신유한의 『해유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11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1; 오바타 미치히로, 『신유한의 『해유록』에 나타난 일본관과 그 한계』, 『한일관계사연구』 제19집, 한일관계사학회, 2003; 김태훈, 『신유한의 『해유록』에 나타난 일본 인식』, 『한국학보』115, 일지사, 2004; 정장식, 『1719년 신유한이 본 일본』, 『일본문화학보』 제20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4; 김상조, 『청천 신유한의 일본 인식과 雨森芳洲 이해』, 『영주어문』 제23집, 영주어문학회, 2012.

8) 정응수,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일본관-신유한의 『해유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11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1, p.47; 김태훈, 『신유한의 『해유록』에 나타난 일본 인식』, 『한국학보』115, 일지사, 2004, p.134; 신선희, 『신유한의 『해유록』에 나타난 기행문학적 특성』, 『장안논총』 제25집, 장안대학교, 2005, p.24.

로, 이는 신유한이 새로운 시각에서 일본을 보려했다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신유한이 ‘일본’이라는 탐구 대상을 균일한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려 노력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여기에서는 신유한의 일본정보 탐색의 방법을 정확성과 객관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러한 방식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일본정보의 정확성 추구

조선후기 통신사가 파견된 주된 목적은 일본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확충이었다. 일본의 재침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조선 조정은 새로 개창한 幕府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하지만 對馬島를 통하거나 探敵使를 파견하는 것만으로는 파악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는 關白이 있는 江戸를 살필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신사 파견을 선택하였다. 그러다 1636년 병자사행 이후 양국의 관계가 안정되면서 통신사는 이전에 비해 자유롭게 일본을 탐색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정치 외교,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심지어는 일상생활까지 그 탐색 영역은 확대되었다. 그리고 사행이 거듭되면서 축적된 일본정보는 통신사행원들이 남긴 사행록과 그들이 들고 온 일본 서적을 통해 조선에 유입되었다. 이렇게 유입된 일본정보는 조선 지식인의 호기심을 자극 하였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일본으로 떠나는 통신사행원을 환송하며 더 다양한 일본정보를 탐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에 전해진 일본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기를 요구하기에 이른다.⁹⁾

그러나 나는 日東이 땅이 넓다고 생각하고, 그 산수가 맑고 곱다고 들었으니 틀림없이 재주가 높고 눈이 넓은 사람이 있을 것이네. 使館의 唱酬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더라도 君의 글을 얻어 평가하며 葵丘의 會盟에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은 한두 나라가 없지 않았던 것과 같다면, 곧 이것이 두려울 뿐일세. 굳은 낮은 언덕이어서 松柏이 없으리라고 소홀히 하지 말게.¹⁰⁾

일본으로 떠나는 신유한에게 崔昌大는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한다. 최창대는 일본은 그 학문 수준이 낮아 신유한의 문장력으로 오랑케 일본을 교화시킬 수 있으리라 장담하였다. 그러면서도 1711년 사행원에 의해 조선에 전해진 新井白石의 『白石詩草』를 들어 일본에도 재능을 가진 文士가 있을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경계의 말을 함께 전하였다. 이는 조선의 지식인들이 일본의 학문 수준을 높이 평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기에 최창대는 일본을 ‘낮은 언덕’이라 비유하면서도 아울러 그에 대한 경각심을 비쳤던 것이다. 또한 이는 일본의 문인, 학자들의 文才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낸 것으로 신유한이 그들을 만나 일본의 학문 수준을 직접 확인하기를 바랐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신유한도 마찬가지였다. 노모의 병환과 자신의 노둔함을 들어 통신사행의 제술관 직을 사양했던 신유한이었지만, 실제 일본으로 출발하고 난 이후에는 사행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신유한은 이전의 통신사행원들이 남긴 일본의

9) 이에 대해서는 안대회, 『임란 이후 해행(海行)에 대한 당대의 시각 -통신사를 보내는 문집 소개 송서(送序)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5권 제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한태문, 『조선 후기 통신사의 驢章 연구-『遼窩府君日本行詩驢章』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73, 어문연구학회, 2012 참조.

10) 신유한, 『해유록』 정월, “然余意日東地廣 聞其山水爽麗 必有才高而眼廣者 不與使館酬唱之席 而得君文字雖黃之 有如葵丘盟 不無一二心背者 則是可畏已 君勿謂培養無松柏而忽之”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자 노력하였다.

長崎는 곧 중국 商船이 정박하는 곳으로 그 이름난 명소와 물산의 번성함으로 국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노정이 (장기를) 경유하지 않아 하나도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점이 가히 애석하다.¹¹⁾

長崎는 서양과 중국의 문물이 일본으로 유입되는 통로였다. 德川幕府는 표면적으로는 쇄국정책을 표방하였지만 對馬島와 長崎 등을 통해 조선과 중국, 그리고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였다. 특히 長崎는 중국 南京은 물론 阿蘭陀의 상선들까지 들어오는 곳으로 유명하였는데, 갑자사행(1624)의 副使 姜弘重은 長崎를 가리켜 ‘商船이 폭주하는 곳’이라 일컬었고, 1711년의 押物通事 金顯文은 ‘阿蘭陀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이라 전했다. 전대 사행록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신유한은 長崎의 실제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고, 그로 인한 아쉬움을 『해유록』에 표출했던 것이다. 이전 통신사행원이 남긴 다양한 기록들은 일본으로의 사행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었다. 책을 통해 알고 있던 내용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와 흥분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시키고 남았을 것이다. 이에 신유한은 기존의 일본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일본을 파악해 나갔다.

1. 관찰을 통한 정보의 확인

일본에서 통신사는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상품이었다. 통신사의 행렬을 보기 위해 일본의 거리에는 임시가설대가 설치되었으며 거리 곳곳은 구경

11) 신유한, 『해유록』, 8월 1일(신축), “長崎則中國商船所泊處 其名勝與百物繁華 最有名國中 而路不由焉 無從一經眼 可憾”

은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통신사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對馬島에서부터 보여지는 모든 것이 구경거리이자 일본을 파악할 수 있는 탐색 대상이 되었다.¹²⁾

산천과 樓臺, 사람들은 곱고 아름다웠고 대[竹]와 나무가 아름답게 우거져서 그 찬란함이 서로 어여쁨을 시기하여 다투어 자랑하는 것 같았다. 왼쪽에서 보면 오른쪽의 풍광을 놓칠까 두려웠고, 오른쪽에서 보면 왼쪽의 것이 더욱 기이하므로 배로 반일 동안 가면서 두 눈이 다 붉어졌다. 마치 식욕 많은 사람이 진수성찬을 얻어놓고 배는 찻는데도 입은 당기는 것과 같았다.¹³⁾

해외로의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대에 풍토와 문화가 다른 일본으로의 사행은 신유한에게 ‘奇遊’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래서 신유한은 사행 중에 목도한 일본의 다양한 모습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려고 노력하였다. 조선과는 다른 일본의 풍광은 산해진미를 보고 입맛이 당기듯 신유한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한 양쪽으로 뻗은 시가지를 앞에 두고는 한쪽을 보면 다른 쪽의 광경을 놓칠까봐 조바심이 일 정도였다. 이러한 호기심으로 신유한은 일본 각 지역의 모습은 물론 제도와 문물, 생업, 그리고 심지어 사행 노정에서 보게 되는 일본인의 의복과 장신구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그런데 신유한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대의 사행록 중 흥미로웠던 일본정보를 기억했다가 이를 비교하고 확인¹⁴⁾

12) 정은영, 「18세기 통신사의 일본 일상 탐색」, 『조선통신사연구』 제19호, 조선통신사학회, 2015, p.8.

13) 신유한, 『해유록』, 9월 4일(계유), “山川樓臺人群麗美 竹木樓華爛爛若妬勝而爭銜者 左眇則恐失右之觀 右矚則左忽益奇 舟行半日 兩皆俱赤 如饞人得珍羞 腹滿而口不饜耳”

하고자 하였다.

그들의 俗節日은 우리나라와 서로 비슷한데, 그 가운데에서 정월 15일을 上等의 절일로 삼고, 8월 1일과 10월 1일을 俗節로 삼으며, 端午와 7월 15일을 가장 佳節로 여긴다. 단오에는 집집마다 깃발을 달고, 곳곳에서 싸움을 익힌다. 7월 15일에는 곳곳마다 놀이를 하는데 불을 들고 산에 오른다.¹⁵⁾

왜의 풍속에 이날을 제일 좋은 명절로 삼으니 동쪽 서쪽 동네마다 뚝뚝 북소리가 나고 남자가 나오면 아녀자가 따라와 함께 나와 술상을 차려 神에게 올리는 놀이를 하였다. 곧 또 집집마다 조상의 묘에 가서 한 사람이 등 하나씩을 달았는데, 자손이 많은 사람은 더러 수십 등이 되기도 하였다. 반짝 반짝 구슬을 꿰어 놓은 것 같았다.¹⁶⁾

申叔舟가 『海東諸國記』에서 일본의 명절을 언급한 이래, 통신사행록의 견문록에서는 上元·中元을 일본인의 최고 佳節이라고 기록하였다. 이 중 중원은 음력 7월 15일로, 설날[お正月]과 더불어 일본의 대표적인 세시 풍속으로 여겨지는 오본[お盆]이 중원을 중심으로 행해졌다.¹⁷⁾ 통신사행록에서 중원을 중요 명절이라고 언급은 하였지만 7월 중 일본에 체류하였던 1617년 정사사행, 1682년 임술사행, 그리고 1711년 신묘사행의 그 어떤

14) 정장식, 「1719년 신유한이 본 일본」, 『일본문화학보』 제20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4, p.293.

15) 김세렴, 『해사록』, 「문견잡록」, “其俗節日 與我國相似 而其中正月十五日爲上等節日 八月初一日十月初一日爲俗節 端午七月十五日最爲佳節 端午則家家豎旗 處處習戰 七月十五日則處處遊嬉 把火上山”

16) 신유한, 『해유록』, 7월 15일(병술), “倭俗以此日爲名節之最 東西洞戶 坎坎有鼓音 男出女隨 作瀝酒賽神之戲 卽又家家上塚 每一人懸一燈 子孫多者或至數十燈 熒熒如貫珠”

17) 오본[お盆]에 대해서는 강진문, 「일본의 세시풍속: 연중행사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2, 위덕대학교아시아태평양연구소, 2003, pp.237-238; 이경아, 「韓日 兩國 歲時風俗의 機能에 관한 考察」,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70-73 참조.

사행록에도 그 구체적인 실상을 기록한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대마도에 머물고 있던 신유한은 등을 달아 조상을 기리고 후손들의 복을 기원하는 중원의 풍습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

한편 신유한은 일본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실제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신유한은 산보에 나섰다. 제술관의 경우, 일본 문사와의 교류가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三使나 譯官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관소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던 17세기에 비해 그 외출이 자유로워져 행동의 반경 또한 상대적으로 넓었다. 특히 海路를 따라 이동을 할 때에는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 체류 기간이 길어지기에 산보를 하며 일본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다. 그래서 이틀 간 머물렀던 佐浦에서부터 大坂에 이르기까지 신유한은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왜통사나 동자를 대동하고 사행 지역 곳곳을 살피며 다녔다.

남녀 아이들은 깎고 남은 머리카락을 머리 위로 묶었는데 마치 우리나라 여름철 農家の 아이들과 대단히 비슷하였다. 발독에 배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다. 내가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키자, 사내아이가 곧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가 긴 장대를 가지고 와서 배를 쳐 땅에 떨어뜨리더니, 4, 5개를 주워서 바쳤다. 내가 그의 인정 있는 것을 기뻐하며 맛보았는데 맛이 없어 먹을 수 없었다.¹⁸⁾

이전 사행에 등장하는 산보가 관소 주변을 둘러보는 가벼운 산책의 개념이었다면, 『해유록』에 등장하는 산보는 신유한이 일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방법이었다. 산보를 나서면 실제 일본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18) 신유한, 『해유록』, 7월 17일(무자), “童男女鬋髮 束在頭腦 絕似我國暑月農家兒 田畔有梨木 結實累累 余以手指之 童男即走入其家 持長竿而來 打梨子落地 拾四五以獻 余喜其有情嚼之 味薄不可飡”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산보를 통해 신유한은 이미 알려졌던 기존의 일본정보를 확인하기도 하였는데, 때로는 그것이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 가졌던 선입관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 17세기 통신사행원이 기록한 일본은 ‘葛伯의 땅’이었고, 일본인은 禮를 모르는 오랑캐였다. 사행 출발 전, 신유한의 일본인식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對馬島의 어느 골짜기에서 어린 아이들을 만난 신유한은 오랑캐라고 여겼던 그들에게서 조선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낯선 모습의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다가오고, 순순히 배를 따서 대접하는 아이에게서 신유한은 사람의 정을 느꼈다. 또한 藍島에 도착한 신유한은 그림처럼 이름답게 꾸며진 민가의 모습에 눈을 땔 수 없었고, 그 속에서 한가롭게 바둑을 두는 일본인을 보면서도 廬山の 白鶴觀을 떠올렸다. 일본을 산보하며 겪은 사소한 경험이었지만 신유한은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일본인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삶을 관찰하며 확인한 결과였다.

이와는 달리 산보를 통해 기존의 일본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과는 다른 일본의 葬禮는 일본을 오랑캐로 보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다.

해변에는 우뚝우뚝 돌을 쌓아 놓았고 목판을 세워 표식을 하였는데, 통사는 이것은 모두 옛사람들의 무덤이라고 하였다. 왜인들은 흙을 쌓아 封墳을 만들지 않고 또한 산에다 묘자리를 잡는 법도 없었다. 바로 울타리 밑이나 길가에 돌을 쌓아 뼈를 보이지 않게 하였다. 귀한 사람은 돌을 깎아 구덩이를 만들고 통 속에 시체를 넣고 깎은 돌로 덮으며 비석을 세우고 사방에 난간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방지하였다. 이 무덤들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죽은 것이라 목판만 세웠다.¹⁹⁾

울타리 경계 경작을 하지 않는 땅에는 구덩이를 파서 무덤을 만들어 돌을 쌓았는데 언덕과 같았다. 때때로 글자 없는 碑를 문 앞에 세워 두었다. 이것은 그 생활과 음식이 무덤 속의 사람과 서로 접해 있는 것이어서 보기에 해괴하였다.²⁰⁾

일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통 속에 가부좌시켜 화장을 하고 재를 모아 절에 모시거나 깨끗한 곳에 묻고 돌을 쌓아 무덤을 표시했다. 시체를 매장하고 봉분을 조성하는 방식에 익숙했던 통신사행원들은 일본의 장례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藍島에서 신유한은 왜통사를 대동하고 산보를 나섰다가 실제 일본의 무덤을 보게 되었다. 이전의 통신사행록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의 무덤은 봉분이 없는 형태였다. 그러나 신유한은 이러한 기존 정보는 일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이었음을 왜통사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된다. 곧 목판으로 표패를 만들어 무덤의 표식으로 삼는 것은 일본 서민의 장례 방식이며, 존귀한 사람들의 상장례는 이와는 다른 방식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신유한은 이와 비슷한 사례를 韃浦에서도 볼 수 있었다. 韃浦에서 신유한이 묵었던 福禪寺에서는 관소 주변의 민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때 신유한은 가옥을 둘러싸고 있던 울타리 옆에서 무덤을 발견하였다. 사람이 기거하는 공간에 무덤을 함께 조성한다는 사실에 신유한은 해괴함을 느끼는데, 이는 화장을 해서 절간의 정결한 곳에 무덤을 만든다는 이전 통신사행록의 기록과 배치되는 사실이었다. 藍島와 韃浦

19) 신유한, 『해유록』, 8월 8일(무신), “海濱多疊石磊磊 立木板以識處 通事云是皆古人塚 倭人不帖土封墳 又無卜岡之法 卽籬底道傍 築盤陀而掩枯骨 貴者斲石爲坎置屍桶其中覆以鍊石 立石碑設欄四面 防人出入 而此爲貧賤而死者 故只有木板云”

20) 신유한, 『해유록』, 8월 28일(무진), “又於籬畔隙壤 掘坎爲塚 累石如阜 時有沒字碑在門前 是起居飲食 與墓中人接耳 所見可駭”

에서 일본인의 무덤을 직접 확인한 신유한은 일본의 장례와 관련된 기존의 정보가 실제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관찰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신유한은 이를 다른 정보의 확인에 이용하였다.

그 서쪽 굽은 언덕에 흙으로 무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름을 白馬塚이라 하였다. 숙설에 전하기를 신라왕이 장수를 보내어 왜국을 공격하자 왜인이 강화하기를 청하여 적간관에 이르러 흰 말을 베어서 맹세하고 인하여 죽은 말을 묻어서 무덤을 만들어 그 땅에 표시를 하였다고 한다. 왜인의 풍속에는 무덤의 제도가 없는데 지금 무덤의 모양을 보니, 반드시 신라 사람이 만든 것이었다.²¹⁾

1617년 정사사행의 從事官 李景稷은 일본의 역사서인 『年代記』를 읽다 백마총에 대해 알게 된다. 신라군이 赤間關까지 이르렀고, 다급함을 느낀 일본인들이 백마를 죽여 화의를 청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조선의 역사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경직이 일본 정벌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을 전하면서 백마총은 조선의 지식인들을 흥분시켰다. 그래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일본으로 떠나는 통신사행원을 전별하며 백마총에 대해 더 많은 사실을 알아올 것을 당부하는 일이 점차 늘어났다. 赤間關의 서쪽 언덕에서 백마총을 발견한 신유한은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신하였다. 그 근거는 일본과는 다른 무덤의 양식이었다. 일본이 돌을 쌓아 무덤을 조성하는데 비해 백마총에는 흙으로 만든 봉분이 존재했던 것이다.²²⁾ 이미

21) 신유한, 『해유록』, 8월 18일(무오), “其西曲岸 帖土爲墳 名白馬塚 俗傳新羅王遣將 攻倭 倭人請成至赤間關 刑白馬而盟 因瘞死馬爲墳 以標其地 倭俗無墳制 今觀墳樣 必是羅人所築”

22) 백마총에 관해서는 정은영, 「조선 후기 통신사행록의 글쓰기 방식과 일본담론 연구」,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일본의 무덤 양식을 이미 확인했던 신유한이었기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었다.

이렇듯 신유한에게 일본으로의 사행은 조선에 전해졌던 일본정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렇기에 신유한은 사행 노정 상에서 볼 수 있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하였고, 산보를 통해 일본의 일상까지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신유한은 기존의 일본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존 정보와의 상이성까지 기록하였다. 이는 신유한의 일본 탐색 목적이 건문의 확충보다는 기존 일본정보의 확인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추구하는데 있었음을 보여준다.

2. 문답을 통한 정보의 확인

문답은 상대방의 인식까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 탐색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일찍부터 통신사행원들은 조선인 포로나 중국인들과 문답을 나누며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병자사행을 기점으로 조선과 일본 간에 평화적인 외교체제가 구축되면서는 문답의 대상이 일본인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학문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조선과 일본 문사 간의 인간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문답을 통한 정보의 확인이 더 쉬워졌다.

신유한은 일본인과의 소통을 위해 일본어를 익히는 등 일본인과의 문답에 적극적이었다. 신유한은 함께 담배를 피우거나 차를 마시는 등 친근감을 표시하며 되도록 많은 일본인과 만나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해유록』에는 다양한 계층의 일본인과 신유한이 문답을 나누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문답 대상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언 일본 문사였다. 특히 對馬島의 朝鮮方佐役이었던 雨森東과는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신유한은 對馬島에서부터 江戸까지 함께 한 雨森東과의 문답을 통해 일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도, 기존의 일본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전대 사행록에서 의문이 제기되었거나 논란이 되었던 일본정보를 문답을 통해 확인하고 해결하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猿山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내가 雨森東에게 이르기를, “일찍이 적간관의 동쪽에 猿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산에서 원숭이가 많이 나서 원숭이 소리가 들을 만하다고 합니다. 어느 곳이 猿山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雨森東이 곧 배를 잡고 웃으며 답하기를, “세상에는 진실로 實體는 없고 虛名만 나는 것이 있나 봅니다. 누가 보고 누가 그것을 전했습니까?”라고 하였다.²³⁾

1643년 사행록인 『癸未東槎日記』에서는 원숭이가 많은 것에서 猿山이라는 이름이 유래했다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바로 다음 사행인 1655년 을미사행의 정사 趙珩은 猿山에 원숭이가 없다고 기록한 반면, 종사관 南龍翼은 1643년과 동일하게 기록하였다. 이렇듯 각기 다른 사행록에서 원숭이 유무에 대한 상반된 기록을 남기면서 이른바 ‘원숭이 논쟁’이 시작되었다.²⁴⁾ 통신사행원들은 조선에서는 볼 수 없는 일본의 기물이나 동식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 중의 하나가 원숭이였다.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원숭이를 통신사행원들은 對馬島主가 베푼 연향에서 처음 볼

23) 신유한, 『해유록』, 8월 18일(무오), “余謂雨森東曰 曾聞赤關之東有猿山 山多產猿 猿聲可聽云 不知何處是猿山 東即捧腹而笑曰 世間固有無實受虛名者 孰見而孰傳之耶”

24) 정은영,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의 글쓰기 방식과 일본담론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p.54-55.

수 있었다. 大坂에서는 돈을 주고 원숭이를 구경할 정도였으니, 신유한이 원숭이가 많이 난다는 猿山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신유한은 雨森東에게 猿山에 원숭이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雨森東과의 문답을 통해 원산이 ‘猿’이 아니라 ‘元’을 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유한은 이전 사행의 기록이 잘못되었다 지적하는 한편 그 잘못이 80년 동안 이어지면서 또 다른 오류를 낳은 사실에 대해 비판하였다.

일본인과의 문답을 통해 일본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은 문견록인 『문견잡록』에 잘 드러나 있다. 1471년 신숙주가 『해동제국기』를 산문의 형식에 항목을 분류하여 저술한 이래, 문견록은 통신사행록의 대표적인 체제로 자리 잡았다. 조선후기의 통신사행원들도 일기에 비해 집약적이고 종합적인 서술이 가능했던 문견록의 체제를 수용하였으며, 1655년 을미사행에 이르러서는 문견록이 사행록을 이루는 독립적인 체제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신유한 역시 일기의 뒤에 『문견잡록』이라는 제명의 문견록을 저술하였는데, 전대 사행록의 내용을 그저 복기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기존의 정보를 확인하며 내용을 더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신유한은 이러한 문견록을 서술하면서 일본인과의 문답을 적극 활용하였다.

일본 男娼의 곱기가 女色보다 배나 되고, 그것을 사랑하여 혹하는 것 또한 여색보다 배나 된다. (중략) 내가 “귀국의 풍속이 괴이하다 하겠습니까. 남녀의 정욕은 본래 천지 陰陽의 이치에서 나온 것이니, 천하가 동일한 바이입니다. 오히려 음란하고 미혹한 것을 경계로 삼는데, 어찌 陽만 있고 陰은 없이 서로 느끼고 서로 좋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雨森東이 웃으며, “學士는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雨森東과 같은 사람이 말하는 바가 오히려 그와 같으니 나라 풍속의 미혹함을 알 수 있었다.²⁵⁾

내가 통역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웃으며 홍보기를, “옛날부터 情과 色 가운 데에 빠져서 혹은 남녀들이 있어, 남자는 인연을 기뻐하여 천금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자는 정에 감동되어 한 푼의 돈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이 야말로 上上의 풍류스러운 일인데,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上上姝라는 것은 추잡한 것을 묻지 않고 이름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단지 돈만 셈하여 애교를 바친다 하니, 이것은 저자의 문에 기대고 있는 下品으로서 몇 푼어치도 못 된다.”라고 하였다. 통역이 말하기를, “나라의 풍속이 서로 다릅니다. 여자의 마음이야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중략) 저 미인들은 감히 스스로 꺾힐 수 있는 바가 없으므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별을 한스러워하는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억지로 (손님을) 맞는 자도 있습니다.”라고 하였다.²⁶⁾

통신사가 일본을 야만시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성풍속 때문이었다. 이전 사행원들은 일본의 성풍속을 금수의 속성으로 치부하였다. 신유한 역시 일본의 유곽을 기술하며 그 성풍속이 문란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²⁷⁾ 그러나 이전에 파견되었던 통신사행원들이 이에 대해 실제로 찾아보거나 확인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전대 사행록을 그대로 따라서 기술한 것에 비해, 신유한은 일본인과의 문답을 통해 성풍속의 실상을 정확히 확인하고자 하였다. 신유한은 男娼制와 遊廓 기생들의 삶을 <男娼

25) 신유한, 『해유록』, 『문견잡록』, “日本男娼之艷 倍於女色 其變而惑者 又倍於女色 (中略) 余曰貴國之俗 可謂怪矣 男女之欲 本出於天地生生之理 四海所同 而猶以淫惑爲戒 世間豈有獨陽無陰 而可以相感相悅者乎 東笑曰 學士亦未知其樂耳 如東之輩所言尙然 國俗之迷惑 可知也”

26) 신유한, 『해유록』, 『문견잡록』, “余聞通事輩口語 笑而陋之曰 自古情色中 有癡郎慾姬 男悅緣而不惜千金 女感驪而不愛一錢 是乃上上風流事 而今爾所云上上姝 不問醜儻 不擇名類 只能算金而獻媚 此可爲倚市之下品 而價不直銖兩 通事曰國俗自異 女子之心腸 豈如此乎 (中略) 彼姝者子有不敢自爲之謀 所以有泣涕而恨別者 含羞而强權者

27) 정응수,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일본관-신유한의 『해유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11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1, p.44.

詞>, <浪華女兒曲>이라는 악부시로 재구성하였다. 그런데 이는 그가 왜 통사에게 들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신유한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가 외설적이고 심하게 추해 입에 담을 수조차 없다고 하면서도 일본 성풍속의 실상을 기록하였다. 그저 일본의 성풍속을 오랑캐의 습속이라고 치부해던 이전 사행록의 내용을 복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일본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문견록에서는 왜통사, 雨森東과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제도들을 일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확인하여 기록하였다. 雨森東의 시에서 남창에 관한 내용을 발견한 신유한은 雨森東에게 일본의 남창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하였다. 인간의 정욕을 陰陽의 차원에서 바라보았던 신유한에게 雨森東은 학문이 아닌 쾌락의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신유한은 일본 성풍속의 미혹됨을 개탄하였다. 또한 신유한은 유곽 기생의 삶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는 大坂에서 유곽의 성행을 목격하고는 官妓制度의 부재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여겼다. 또한 신유한은 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일본의 성문화에 대해 비웃었다. 그러나 풍류의 차원에서 情과 色을 말하는 신유한에게 왜통사는 이미 性이 하나의 산업이 되어버린 일본의 현실을 이야기한다. 더 나아가 왜통사는 신유한은 알지 못했던 유곽 기생의 힘든 삶을 전하였는데, 이에 신유한은 ‘養漢的’이라 비판받던 기생들의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비웃음을 거두게 되었다. 비록 신유한이 조선과는 다른 일본의 풍속과 제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일본인과의 문답을 통해 전대의 배타적인 인식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신유한은 일본인과의 문답을 통해 이전 통신사행록에서 논란거리가 되었거나 의문이 제기되었던 부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보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그것을 바로 잡았고, 짧게 언급된 부분은 설명을 더하는 방

식으로 일본정보에 정확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일본인과의 문답을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 조선인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일본인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의 일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신유한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Ⅲ. 일본정보의 객관성 확보

일본에 대한 지적 탐구는 일본으로 떠나는 시점이 아니라 통신사로 차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사행원으로 선발이 되면 우선적으로 일본 관련 문헌과 일본 지도를 찾아 그 내용을 살폈다. 그러나 무엇보다 유용한 정보는 자신들에 앞서 일본을 방문한 사람들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통신사행원들은 전대의 통신사행록을 숙지하거나 기록을 휴대하고 사행을 떠났다. 즉 통신사행록은 단순한 일본 체험기가 아니라 대일 외교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이자 동시에 후대 사행원들의 외교 지침서였다. 조선후기 통신사행원들은 이전의 기록에 새로운 견문을 찾아 일본정보를 확충해나갔다. 그래서 통신사가 파견된 지 100여 년이 흐른 시점에는 일본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이미 축적된 상태였다. 이에 신유한은 전대 사행록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을 찾기 보다는 기존의 정보를 확인하여 객관화하는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1. 근거에 바탕을 둔 인과적 분석

신유한이 참여했던 기해사행은 일본에 의해 단행되었던 聘禮制度를 폐

지하고 임술사행에 적용했던 舊禮로의 회복을 전제로 파견되었다. 新井白石의 주도로 이루어진 빙례개혁은 표면적으로는 평화·간소·대등의 원칙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통신사의 격을 낮추고 막부의 권위를 상대적으로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²⁸⁾ 일본 막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조선 조정은 1711년 신묘사행의 삼사에게 그 잘못을 물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파견되었던 통신사행원들은 의례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의례의 절차와 성격을 두고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일본측과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그 하나가 大佛寺에서의 연향이었다.

사신이 답하기를, “태수가 關白의 명으로 우리를 성대한 연회에 초대하는데 어찌 사양할 일이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본국에 있으며 평소에 大佛寺는 秀吉의 願堂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賊은 우리나라 백 년의 원수로서 의리상 하늘을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물며 그 절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厚意를 사양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奉行과 裁判 및 雨森東 등이 모두 뺨기를 청하여 앞에 이르러 말하기를, “願堂이란 말은 일본인으로서 듣지 못한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사신이 꾸짖어 물리치며 많은 말을 말라고 하였다.²⁹⁾

국서 전달이 끝나고 조선으로 돌아가는 통신사를 위해 關白이 大佛寺

28) 빙례개혁에 대해서는 손승철, 『조선후기 한일관계사연구-교린관계의 허와 실』, 경인문화사, 2006, p.228; 한태문, 「신유한의 『해유록』 연구」, 『동양한문연구』 제26집, 동양한문학회, 2008, p.453 참조.

29) 신유한, 『해유록』, 11월 1일(기사), “使臣答曰 太守以關白之命 速我於盛儀 何事之辭 第吾在國時 素聞大佛寺 爲秀吉之願堂 此賊乃吾邦百年之讎 義不共天 況可酣飲於其地乎 謹謝厚意 於是奉行裁判及雨森東 皆請謁至前而白曰 願堂之說 日本人之所未聞 使臣叱退曰 毋多談”

에서 연향을 베푸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1719년 己亥使行의 삼사는 大佛寺가 秀吉의 願堂임을 들어 연향 불참을 일본측에 통보했다. 당황한 對馬島主와 장로들은 大佛寺가 秀吉의 願堂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통신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일본측은 大佛寺가 秀吉이 아닌 제3대 관백 家光을 위해 세운 곳이라는 위조 기록을 근거로 내세웠고, 결국 正使와 副使는 대불사의 연향에 참여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러한 소동은 기행사행의 원역들은 임술사행과 동일한 사안일지라도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으면 그 근거를 찾아 재검토 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더 나아가 신유한은 전례에 부합하는 사항이라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를 직접 확인한 후 개정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신유한은 對馬島主가 제술관과 화원을 자신의 저택에 초청하는 자리를 갖는 舊禮마저도 조선의 예법에 맞지 않다고 따르지 않았다.³⁰⁾ 같은 맥락에서 신유한은 전대 사행록 중 수정을 요하거나 상황이 변한 경우에는 그 달라진 내용을 밝혀졌고, 그 변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전대 사신들은 모두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의 금령이 있다고 핑계하고 들어가 보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아마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미 天皇의 사당이라고 이르면서도 누추하기가 叢祠와 같아서 지나는 손으로 하여금 바로 서서 보게 하는 것이 부끄러워 들어가기를 금하였고, 또 그 일이 이웃나라에 소문나게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賴朝가 지금 家康의 먼 조상이므로 숨기는 것이다.³¹⁾

30) 정장식, 「1719년 신유한이 본 일본」, 『일본문화학보』 제20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4, p.291.

31) 신유한, 『해유록』, 8월 18일(무오), “自前使行 皆得目擊 而今則托有邦禁 不許入見 蓋其意既曰皇廟 而陋如叢祠 使過客平立睨視 似爲可羞 故禁之 且其事不可使聞於

赤間關에 도착한 신유한은 安徳天皇의 사당을 찾았다. 安徳天皇은 原賴朝에 의해 축출당해 죽음에 이른 일본의 제81대 天皇으로, 이후 天皇은 정치적 실권을 關白에게 빼앗기고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다. 平治의 난으로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平清盛은 福原으로의 천도를 단행하려다 귀족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때 原賴朝가 平清盛에 반대하는 세력을 규합·봉기하여 檀浦에서 平氏家를 멸망시켰다.³²⁾ 이에 平清盛의 외손이었던 安徳天皇은 그 조모 白河后와 함께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는데 그때 安徳天皇의 나이가 8살에 불과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사당을 지어 安徳天皇을 기렸다. 四溟大師가 이곳에 방문하여 그를 애도하는 시를 남긴 이후, 安徳天皇의 사당을 방문하여 사명대사의 시에 차운하는 것은 통신사행원에게 관행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安徳天皇의 사당을 방문한 신유한은 이전 사행과는 달리 그 내부를 볼 수 없었다. 이에 신유한은 일본이 통신사에게 安徳天皇의 사당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는 일본측이 安徳天皇의 사당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를 현 關白과의 관련성에서 설명했다. 명색이 天皇의 사당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찰보다 퇴락한 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 보다는 자국의 치부를 조선의 사신들에게 보이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신유한이 생각한 치부란 安徳天皇을 몰아낸 原賴朝가 家康의 조상이라는 사실이었다. 신유한은 原賴朝를 가리켜 “나이 어린 천황을 핍박한 역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湛長老와 雨森東의 시문을 들었다. 그들의 시문에는 安徳天皇의 죽음에 비분강개하며 原賴朝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隣國 而賴朝又是家康之遠祖 故諱之也”

32) 동경대 교양학부 일본사연구실 편, 김현구·이연숙 역, 『일본사개설』, 지영사, 1994, pp.103-106.

이처럼 신유한은 安徳天皇과 原賴朝를 바라보는 일본 문사의 시를 근거로 변화가 발생한 원인을 나름대로 추론하였다.

한편 신유한은 전대 사행에서 ‘蠻夷의 풍속’이라 지칭되던 일본의 여러 제도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그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기를, “제가 멀리 왔다가 이런 참혹한 지경에 있으니, 차마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王法에는 奔喪을 허락하는 例가 없고 몸이 公役に 매어서 억지로 따라다니느라 착용한 푸른 무늬의 옷을 조금도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조선 사람을 대하기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뜻은 대개 우리나라가 喪禮를 중히 여기는 것을 저도 또한 들은 바가 있으므로 부끄러운 줄 알고, 타고난 본성을 지키지 못함에 이마에서 땀이 흐른 것이다. 위정자들은 어찌 백성들로 하여금 이 본심을 상실하게 한다는 말인가.³³⁾

신유한은 對馬島에서부터 江戶까지 자신을 배종한 왜통사가 모친의 喪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다. 며칠 후 다시 만난 왜통사에게 신유한은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왜통사는 상을 당했음에도 상복을 갖추어 입지 않고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였다. 이에 대해 신유한은 왜통사가 이미 통신사행원들이 禮法에 민감하고 특히 喪禮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타고난 본성이 자신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즉 신유한은 무엇이 예인지를 알고, 그 예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본인의 천성이 조선인과 동일하

33) 신유한, 『해유록』, 『문견잡록』, “則其人稽頂而謝曰 一身遠來 有此慘境 不忍言喻 日本王法 無許人奔喪之例 身係公役 黽勉隨行 所着青紋 無一變更 羞以此狀 對朝鮮人耳 其意蓋以我國重喪禮 渠亦有所聞 故知其可愧 而本心之秉彝 便若泚發於類 爲其上者 何爲使民失此心耶”

다고 여겼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천성을 거스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예법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관련 제도를 확립하지 못한 위정자의 탓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신유한은 세습제가 일본의 학문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했다. 사행 노정에서 수많은 일본 문사를 만나 시문을 창수하고 필담을 나누며 신유한은 일본의 학문 발전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다.

대대로 일본의 문학을 담당했으므로 무릇 국가에서 쓰는 문장은 모두 그의 집안에서 나왔고, 門徒가 되어 천거를 받아 녹을 먹는 자가 수십 인이었다. 그러나 그의 文筆을 보니 拙朴하여 제대로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다. 일본의 벼슬은 다 세습이므로 비록 높은 재주와 깊은 학문이 있어도 信篤을 평상 아래에서 바라볼 수 없었다. 우습다.³⁴⁾

신유한은 松浦儀나 三宅緝明 등의 몇몇에 대해서는 그 실력을 인정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일본 문사의 문학적 역량을 낮게 평가하였다. 그런데 太學頭 林信篤을 만난 신유한은 그의 학문 역량을 보고 일본의 학문이 성장하지 못한 원인이 벼슬의 세습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문필이 졸박한 그가 일본의 官學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국가의 문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직위가 세습되었기 때문이라고 신유한은 보았다. 조선이 과거를 통해 인재를 등용하는데 비해 일본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작 실력 있는 사람들은 등용되지 못한 채 각 藩에서 한문서류를 맡는 관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었다.³⁵⁾

34) 신유한, 『해유록』, 9월 29일(정유), “世掌日本文學 凡爲國用詞翰 皆出於其家 爲門徒而被薦食祿者數十人 然觀其文筆 拙朴不成樣 日本官爵皆世襲 雖有高才淺學 不得望信篤於牀下 可笑”

35) 오바타 미치히로, 「신유한의 『해유록』에 나타난 일본관과 그 한계」, 『한일관계사연구』

하지만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필담창수의 상황, 천리가 넘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소년 문사의 모습을 보며 신유한은 일본 전역에서 일어나는 문흥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고, 일본의 학문이 성장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학문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였다.

때때로 한 句, 한 聯이 매우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즉석에서 지었을 때 본 바와 하늘과 땅 차이였다. 나는 南京의 海商들이 늘 서적을 싣고 와서 長崎島에 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順治 이후에 일본에 있는 江南才子의 시집이 많았는데, 조선 사람으로서는 보지 못하던 것이었다.³⁶⁾

일본은 國都에만 聖廟를 세우고 各州에는 庠序와 俎豆가 없었다. 그런데 吉元이 長門州의 태수가 되어 자못 선비를 장려하고 학문을 숭상하여 금년 봄에 關白에 啓請하여 비로소 五聖廟를 세웠는데 국도로부터 神主를 받들어 왔고 小倉貞으로 教授를 삼아서 詩書의 교육을 맡게 하였다 한다.³⁷⁾

일찍이 신유한은 大坂의 柳枝軒·玉樹堂과 같은 책방에서 중국과 조선의 다양한 서적을 출판·판매하고 있는 점, 자신을 비롯한 四文士와 일본의 외교승 性湛이 나는 필담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星槎答響』이라는 두 권의 문집으로 간행된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³⁸⁾ 또한 일본 문사와의 창수에서 아름다운 시구를 발견한 신유한은 長岐를 통해 들어오는 중국의

제19집, 한일관계사학회, 2003, pp.21-22.

36) 신유한, 『해유록』, 『문견잡록』, “時有一句一聯之最佳者 視席上所賦 全是天壤 余意 南京海賈 每以書籍來販於長崎島 故順治以後 江南才子之詩集 多在日本 而爲我人所未見者”

37) 신유한, 『해유록』, 8월 18일(무오), “日本但於國都 立聖廟 各州無庠序俎豆 而吉元爲長門太守 頗能獎士崇學 今春請命始建五聖廟 自京師奉題版而來 以小倉貞爲教授 掌詩書訓誨”

38) 한태문, 「신유한의 『해유록』 연구」, 『동양한문연구』 제26집, 2008, p.433.

서적들을 통해 일본 문사의 역량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역을 통한 서적의 유입이 일본의 학문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신유한은 일본 학문이 성장할 수 있었던 내적 동인에 대해서도 생각하였다. 徳川幕府는 신분질서의 확립을 통해 幕府와 關白에 권위를 부여하고 군주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는 성리학을 수용하여 관학으로 삼았다. 특히 5대 關白 綱吉에 이르러 文治와 徳治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확립되면서 막부의 유학 장려책 역시 일본의 학문을 발전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赤間關에서 신유한은 小窓貞을 통해 長門州의 학문 장려에 대해 알게 되었다. 小窓貞은 長門州의 태수 吉元이 關白을 설득하여 江戸 이외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文廟를 조성하였고, 太學頭의 문하인 자신을 교수로 삼아 詩書의 교육을 맡겼다고 전하였다. 文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본의 시대적 분위기를 감지한 신유한은 新井白石이나 그 스승 木下順庵처럼 박식하고 문재를 지닌 사람들이 더 많이 등용되고, 그에 따라 학문에 힘쓰는 자가 늘어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렇듯 신유한은 일본의 변화상에 주목하였다. 그 변화가 때로는 일본이 감추고 싶은 치부 때문일 수도, 반대로 발전의 과정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신유한은 변화의 양상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 원인을 추론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자신의 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믿을만한 근거로 일본 문사의 글이나 사실이 확인된 정보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신유한은 일본의 현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객관성도 획득할 수 있었다.

39) 야마구치 게이치 지음, 김현영 옮김, 『일본근세의 왜국과 개국』, 혜안, 2001, p.200.

2. 객관적 시각에 바탕을 둔 열린 판단

조선 지식인에게 자연은 심성을 수양하고 학문을 연마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세속적이거나 정치적인 현실과는 구별되는 은일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일본의 자연은 임진왜란으로 야기된 일본에 대한 적개심, 사신으로서의 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다. 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계절감 때문에 사행 노정 그 자체가 이국적 풍광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통신사는 자신들이 묵는 관소를 ‘神仙宅’, 마주하는 산을 三神山에 비유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풍광을 조선과 비교하며 자국을 더 우위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는 달리 신유한은 일본 산수를 기록하며 그 아름다움을 극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우리나라 高城郡에는 三日浦가 있어 關東에서 제일가는 명승이라고 합니다. 세속에서 전하기를 仙人 永郎이 포구 위에서 3일 동안 머물다가 가므로 인하여 (삼일포라고) 이름 삼았다 합니다. (중략) 우리가 이번에 머문 것으로 말하면, 藍浦가 삼일포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⁴⁰⁾

신유한은 藍浦의 아름다움을 三日浦와 비교하였다. 삼일포는 외금강의 물줄기가 막혀 만들어진 호수로, 금강산으로부터 흘러내린 화강암이 호수 중간 바위섬을 이루고 있는 곳이었다. 삼일포의 풍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신라의 四仙이 이곳에 놀러왔다가 돌아가는 것도 잊고 3일 동안 머물렀다는 고사가 있을 정도였다. 이미 고려시대부터 그 아름다움이 알려져 關

40) 신유한, 『해유록』, 8월 9일(기유), “余謂我國高城郡 有三日浦 爲關東第一名勝 俗傳仙人永郎 留浦上三日而去 因以爲名 (中略) 今以此行所留言之 藍浦大勝於三日浦矣”

東八景 중의 하나로 불리었으며, 금강산과 더불어 조선의 지식인들이 시문에서 극찬했던 유람 명소였다.⁴¹⁾ 그런데 신유한은 이런 삼일포보다 일본의 藍浦가 훨씬 좋은 곳이라 직접적으로 말하였다. 더욱이 신유한은 조선의 삼일포에 빗대 藍浦의 아름다움을 九日浦라고 표현한 雨森東의 말에도 별다른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수긍하였다.

이러한 점은 이전의 통신사행원들이 조선의 풍광이 더 낫다며 일본 자연을 일부러 폄하하며 대결구도를 취하거나, 자연과 대비되는 일본의 오랑캐적 기질을 연결시켰던 것과는 사뭇 구분되었다.

만약 진시황으로 하여금 이 산의 광경을 琅琊台에서 보게 하였더라면 마땅히 다시 창해를 건너서 眞仙을 볼렀을 것이다. 이곳에서 그 산 아래에까지 거리가 4백여 리라 하였는데 지금 이미 나의 눈에 들어왔으니, 아마 해외의 모든 산이 富士山에 견줄 것이 없어 보였다.⁴²⁾

1617년과 1811년을 제외한 나머지 10차례의 사행에서 통신사행원들은 富士山の 절경을 詩賦로 표현했다. 일본인들이 통신사와의 필담창화에서 富士山을 주제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기도 했지만, 반복된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富士山の 독특한 외양 자체가 통신사행원의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통신사들은 富士山에 仙의 이미지를 부여하면서 三神山과 가깝다고 하다가도, 이무기가 사는 반신성적이고 반도덕적인 공간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富士山을 조선의 金剛山과 비교할 수 없는 보잘 것

41) 삼일포에 대해서는 이상균, 「조선시대 관동유람의 유행 배경」, 『인문과학연구』31,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01, pp.184-190; 용환진, 「관동팔경의 경관 특징에 관한 고찰」, 『한문고전연구』 제9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4, pp.98-102 참조.

42) 신유한, 『해유록』, 9월 19일(무자), “若使秦皇帝 得此光景於瑯琊臺 當復駕滄海呼眞仙耳 聞此距其山之趾四百餘里 而今已在吾眼中 度海外諸山 無與富士山抗者”

없는 것⁴³⁾으로 치부하기도 하였다.

통신사행원들은 또한 富士山에 대해 설명하는 일본인의 말은 그 과장된 기질을 이유로 믿으려 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富士山의 빛깔이었다. 조선의 산과 달리 흰빛을 띠는 富士山을 보고 통신사행원들은 그 이유를 궁금해 했다. 이에 왜통사가 富士山이 높아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자, 대부분의 통신사행원들은 허탄한 이야기라고 무시하였다. 그러나 신유한은 조선의 長白山을 예로 들며 일본인의 설명이 틀리지 않았을 것이라 기록하였다.⁴⁴⁾ 아울러 신유한은 富士山의 아름다움을 솔직히 인정하며 이와 견줄 곳이 없다고 극찬했다. 신유한의 이러한 생각은 자국 중심의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일본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했던 신유한의 열린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일본인을 바라보는 신유한의 시각 역시 이전의 통신사행원과 동일하지 않았다. 신유한 스스로가 자신이 일본에서 만난 일본인이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듯이 그는 통신사를 수행하는 對馬島의 관리나 일본의 문사에서부터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일본인에게까지 관심을 기울였다. 신유한은 자신이 만난 일본인에 대해 기품이 연약하고 말과 행동은 추술하다는 총평을 하였고, ‘倭’나 ‘蠻’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였다. 이를 두고 신유한이 조선중화주의적 시각에서 일본인을 바라보았다거나 ‘일본인=오랑캐’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⁴⁵⁾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인을 지칭하는 하나의 관용구에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신유

43) 이혜순, 「18세기 한일문사의 금강산-부사산의 우열 논쟁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제14집, p.207.

44) 신유한, 『해유록』, 9월 23일(임인), “而到上頭 山高則氣寒 氣寒而停雪 如北土之長白山固也”

45) 신선희, 「신유한의 『해유록』에 나타난 기행문학적 특성」, 『장안논총』 제25집, 장안대학교, 2005, p.24.

한은 일본인을 기술할 때는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⁴⁶⁾

이러한 점은 인물을 평할 때 그들을 선입견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습속이나 지위에 따라 평하였던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신유한은 일본 문사의 학문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그들의 작품을 가리켜 ‘추술하다’, ‘투박하다’ 심지어는 ‘가소롭다’는 평을 쓰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조선의 문사와 비교하며 일본 문사 전체를 폄하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일본 내에서의 역량을 상대적으로 평가한다든지 그 인간됨됨이를 언급하며 호의적으로 대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雨森東이라는 동일 인물에 대해 그 학문적 역량과 관리로서의 면모에 따라 상반된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유한은 일본의 다른 계층에 대해서도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았다.

그의 爲政은 반드시 후하고 質朴함을 먼저 하여 궁한 백성을 어루만져 주게 하고, 官에 대한 빚을 감면하였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면 혹 코를 베고 발을 베어 사형을 대신하니, 국민들이 칭송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⁴⁷⁾

여색은 요염하고 고운 것이 많아서 비록 연지와 분을 바르지 아니하여도 대개 부드럽고 희다. 분을 바르고 화장을 질게 한 자도 살결이 부드럽고 미끈하므로 자연히 본색과 같다. (중략) 나이 젊은 倭男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뺨을 어루만지면서 서로 좋아하여 사람 많은 데나 넓은 길에서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⁴⁸⁾

46) 김태훈, 「신유한의 『해유록』에 나타난 일본 인식」, 『한국학보』115, 일지사, 2004, p.126; 오바타 미치히로, 「신유한의 『해유록』에 나타난 일본관과 그 한계」, 『한일관계사연구』 제19집, 한일관계사학회, 2003, p.31.

47) 신유한, 『해유록』, 9월 27일(병신), “其爲政必先敦朴 撫恤窮民 蠲減逋負 人犯死罪或剗刑 以代其死 國人莫不讚頌”

48) 신유한, 『해유록』, 「문견잡록」, “女色多妖妍怪麗 雖不施脂粉 而大抵細膩皓白 其傳粉濃粧者 亦以肌膚軟澤 自然如本色 (中略) 或與倭男年少者 按頂撫腮 而相悅於稠

조선과는 달리 일본은 天皇과 關白이라는 이중적인 지배체제를 취하고 있었다. 특히 關白은 명목상으로는 天皇의 임명을 받는 신하이지만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통신사행원이 관심을 가진 대상이었다. 關白에 대한 통신사의 인식은 자신이 모시던 군주의 권력을 찬탈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통신사행원들이 복명시 거론했던 關白은 우둔하고 미개한 오랑캐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러나 신유한은 제8대 關白 吉宗에 대해 백성의 빛을 탕감하고 형벌을 무겁게 내리지 않아 일본인의 칭송을 받는 인물로 평가하였다. 그 외양이 아니라 위정자로서의 자세와 능력이 평가의 잣대로 적용된 것이다.

일본 여성에 대한 신유한의 평가 역시 이전의 통신사와는 달랐다. 신유한은 사행 노정 상에서 만난 다양한 계층의 여성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그들의 복색과 미색에 대해 언급하거나 그들의 일상을 이야기하되 비하하는 기색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길에서 사랑하는 남자의 얼굴을 쓰다듬는 여성을 보고서도 정절이나 婦德을 내세워 비판하지 않았다. 이는 전대의 통신사행록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17세기의 통신사에게 일본 여성은 겉모습은 아름다우나 정절을 지키지 않는 오랑캐 그 자체였다. 그러나 이는 실제 여성을 보고 내린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을 겪으며 강화된 조선중화주의를 반영한 시각이었다. 반면 신유한은 이념에 경도되어 일본 여성을 오랑캐로 규정하고 넘어가는 관념적 인식에서 벗어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실제 그녀들의 모습을 기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동안 통신사의 일본에 대한 시각은 인상주의적 비평에 가까웠다. ‘조선’이라는 기준에 따라 일본을 바라보았기에 동질정보다는 이질성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華夷論’이라는 지배적 이념이 덧씌워

지면서 그 이질성은 오랑캐적 습속으로 설명되고는 하였다. 그러나 서로 다른 문화사회적 토대 위에 존재하는 두 나라를 이분법적인 논리에 따라 그 우열을 가리고 평가를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신유한은 이러한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열린 시선으로 일본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自’와 ‘他’의 구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일본을 보려고 했던 신유한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일본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IV. 결론

임진왜란 이후 조선 조정은 일본의 재침 가능성을 파악하고, 조선 우위의 외교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이를 위해 17세기 통신사는 일본에 거주중인 조선인 포로와 중국 상인을 만나고 일본의 문헌을 탐독하는 등 일본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조일 양국 간 안정적인 외교관계가 확립된 병자사행(1636) 이후에는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정보 탐색에서 벗어나 통신사행원 개인의 학문적 성향이나 지식인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일본정보의 탐색 범위도 다양화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사행을 통해 조선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본정보가 축적되었다. 하지만 문화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일본을 바라보던 시각은 물론, 일본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기술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기해사행(1719)의 제술관이었던 신유한은 전대 사행록의 내용을 복기하거나 내용을 더하는 기존의 정보 탐색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신유한은 기존의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잘못된 것은 정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본정보의 정확성을 추구하였다. 아울러 이전과는 달라진 일본

의 변화상을 잡아내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이유를 고찰하거나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그는 ‘조선’이나 ‘화이론’이라는 기존의 이념에 따라 내린 주관적인 평가를 최대한 배제한 채, 실제 일본에서 관찰하고 일본인과의 문답을 통해 알아낸 사실을 근거로 일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조선인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정보일 경우에는 판단을 유보하며 단정적인 기술을 하지 않았고, 대신 일본인의 말을 그대로 기록하여 그들의 시각을 알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시각에서 일본에 접근하려했던 신유한의 노력은 후대 통신사와 조선의 지식인에게 영향을 미쳤다. 확인을 요하거나 의문이 나는 점은 직접 찾아가 눈으로 관찰하고 일본인에게 질문하는 방식은 정보 탐색의 방법으로 일반화되었다. 또한 ‘조선’을 중심에 두고 일본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본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발전상에 비추어 조선의 현실을 반성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물론 신유한의 일본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미 창조성을 잃어버린 주자학이라는 기준으로 일본의 제도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신유한이 탐색한 정보와 지식이 과연 새로운 일본을 담을 수 있었겠냐는 비판도 가능하다. 실제 신유한은 불완전한 일본 제도의 해결책으로 주자학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그 한계는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신유한이 일본을 파악하기 위해 선택했던 방식은 조선중화주의에 경도되어 일본을 바라보았던 이전의 시각에서 진일보한 것이었다. 바로 이런 점이 『해유록』이 지닌 진정한 가치이며 지금까지도 연구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국역 『해행총재』, 민족문화추진회, 1982.
- 손승철, 『조선후기 한일관계사연구-교린관계의 허와 실』, 경인문화사, 2006, p.228.
- 동경대 교양학부 일본사연구실 편, 김현구·이연숙 역, 『일본사개설』, 지영사, 1994, pp.103-106.
- 야마구치 게이치 지음, 김현영 옮김, 『일본근세의 쇄국과 개국』, 해안, 2001, p.200.

2. 논문 및 단행본

- 강진문, 「일본의 세시풍속 : 연중행사를 중심으로」, 『아태연구』2, 위덕대학교아시아태평양연구소, 2003, pp.237-238.
- 김상조, 「청천 신유한의 일본 인식과 雨森芳洲 이해」, 『영주어문』 제23집, 영주어문학회, 2012, pp.311-337.
- 김윤향, 「18세기 申維翰의 일본인식에 관한 고찰-통신사기록 ‘해유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pp.1-63.
- 김태준, 『朝鮮漢文學史』, 조선어문학회, 1931, p.171.
- 김태훈, 「신유한의 『해유록』에 나타난 일본 인식」, 『한국학보』115, 일지사, 2004, p.126.
- 소재영, 「『해유록』에 비친 한일관계-申維翰의 『해유록』 연구」, 『송실어문』4집, 송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7, pp.5-25.
- 신선희, 「신유한의 『해유록』에 나타난 기행문학적 특성」, 『장안논총』 제25집, 장안대학교, 2005, p.24.
- 안대회, 「임란 이후 해행(海行)에 대한 당대의 시각 -통신사를 보내는 문집소제 송서(送序)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5권 제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pp.209-240.
- 용환진, 「관동팔경의 경관 특징에 관한 고찰」, 『한문고전연구』 제9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4, pp.98-102.
- 이경아, 「韓日 兩國 歲時風俗의 機能에 관한 考察」,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70-73.
- 이상균, 「조선시대 관동유람의 유행 배경」, 『인문과학연구』31, 강원대 인문과학연구

- 소, 2001, pp.184-190.
- 이성후, 「청천 신유한의 대일관 연구」, 『금오공과대학교 논문집』 제18집, 금오공과대학교, 1997, pp.223-238.
- 이혜순, 「충격과 조화-申維翰의 『해유록』 연구-」, 『동방문화비교연구총서』2, 한국동방문화학회, 1992, pp.805-837.
- 이효원, 「신유한의 『낭화여아곡』과 일본의 성 풍속」, 『한국한문학연구』 제47집, 한국한문학회, 2011, pp.623-651.
- 정은영,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의 글쓰기 방식과 일본담론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p.174-175.
- 정응수,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일본관-신유한의 『해유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11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1, p.44.
- 정장식, 「1719년 신유한이 본 일본」, 『일본문화학보』 제20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4, p.293.
- 정영문, 「신유한의 『해유록』 연구」, 『동양한문연구』 제26집, 2008, pp.457-459.
- _____, 「18세기 일본한시단-申維翰 문집에서」, 『일본학』2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982, pp.137-160.
- _____, 「18세기 한일간의 한문학교류-청천 申維翰과 新井白石」, 『전통문화연구』1집, 명지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83, pp.121-145.
- _____, 「18세기 한일문사의 금강산-부사산의 우열 논쟁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제14집, p.207.
- _____, 「18세기 통신사의 일본 일상 탐색」, 『조선통신사연구』 제19호, 조선통신사학회, 2015, p.8.
- _____, 「靑泉 申維翰と日本」, 『논문집』 제6집, 건국대학교 부설교육연구소, 1982, pp.29-112.
- 오바타 미치히로, 「신유한의 『해유록』에 나타난 일본관과 그 한계」, 『한일관계사연구』 제19집, 한일관계사학회, 2003, p.6.
- 최박광, 「조일간 한문학 교류에 대하여, 청천 申維翰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5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80, pp.229-240.
- 한태문, 「조선후기 통신사의 贈章 연구-『遼窩府君日本行詩贈章』을 중심으로」, 『어문연구』73, 어문연구학회, 2012, pp.283-308.

Abstract

A study on Japan Information Exploration Method of Shin, Yu Han

Jeong, Eun-Young

Shin, Yu Han who was dispatched to Japan as an envoy in 1719 made positive efforts to explore Japan. It was because that travel to Japan was an opportunity for him directly to confirm Japan which was known to Chosun. Therefore, he walked every day whenever he was free to observe living space of Japan in detail which was a good opportunity for him to look into their real life.

In the meantime, he tried to confirm the information about Japan which was descended through the existing Sahaenrok. The useful method for this was to ask Japanese what he wondered and doubted. Therefore, he learnt simple Japanese language and tried to communicate with Japanese and confirmed his information through exchanging writings with Japanese literature. Those envoys who had been dispatched in the past saw Japan with prejudice that they were savage and loathed them because they looked different. However, Shin, Yu Han was searching for something different in the Japanese system and culture from those of Chosun and further asked and observed why it was so different. Not only such positive exploration of Shin, Yu Han changed the way to see Japan in some different way, but also upgraded simple Japanese information to be more objective.

Key Word : Tongsinsa, Shin, Yu Han(申維翰). *HaeYuRok*, Accuracy, Objectivity, Japan information, Exploration.

정은영

소속: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전자우편: torry97@naver.com

이 논문은 2015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5년 11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